

농특위 「산림혁신특위」 워크숍 결과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2.4.15.(화) 10:00~12:00, 코리아나호텔 프린스룸
- 참석 : 특위 위원 13명⁽¹⁾, 김재현 본위원, 사무국⁽²⁾, 산림청⁽³⁾
* (1) 구자춘, 김소민, 김종원, 김지훈, 박정희, 안기완, 이강오, 이승재, 이임영, 이학래, 진혜영, 최무열, 최정기 위원, (2) 임성규 팀장 외 2명, (3) 안병기 산림정책과장
- 내용 : 산림혁신특위 '22년 의제안(5건) 발제 및 질의·응답

□ 주요 내용

[1] 워크숍 개최

- 정은조 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무열 위원이 워크숍을 진행함을 공지

[2] [농특위 사무국] 추진 경과보고

- 산림TF 안건 추진 경과와 성과 및 시사점, 산림혁신특위 '22년 의제 추진 경과 및 안건 추진 고려사항 보고

[3] 의제안 1. 원-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의 조건과 과제

- (발제, 구자춘 위원) 산림복지 분야 공공 부문 사업은 마중물 역할로 한정하고, 플랫폼 개방으로 임업인 위주의 사업 여건 마련 필요
- (논의) (김소민 위원) 플랫폼을 통한 산촌 매칭 및 ESG 연계와 산림 복지전문업 계약 여건 개선 필요, (박정희 위원) 공공 부문이 공적 투자를 활용해 민간과 시장경쟁 양상 중인데 불공정한 구조이고 본분에 어긋남, (진혜영 위원)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해야 하고 빅데이터 및 트렌드 파악 필요, (최정기 위원) 산림복지와 산촌의 연계가 필요, (이승재 위원) 플랫폼 도입으로 품질 관리와 시장 질서 유지 기대

[3] 의제안 2. 국산원목 적치장(원목시장) 도입

- (발제, 김지훈 위원) 국산원목의 등급·등급별 분류 및 수요자 가격 제시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목재 이력제 시스템을 재구성
- (논의) (김재현 본위원) 우리나라는 국산재의 저장과 유통 및 등급별 분류가 가능한 시스템이 부재, (김종원 위원) 소비자가 구입 희망 목재의 등급과 가격을 올리면 공급자가 연결되는 플랫폼의 구축·운영과 공공 부문의 국산 목재 재고 장기 보유 역할 수행이 필요

[4] 의제안 3. 우리나라 사유림 경영실태와 발전 방향

- (발제, 박정희 위원) ‘공익용 산지의 경영 손실에 따른 손실 보상’ 등 육림업 특성 및 산주 여건을 반영한 사유림 발전 10개 방안 제시
- (논의) (이임영 위원) 국내 산림정책 방향의 우선순위가 목재 자급 자족과 공익기능 향상 중 어느 쪽인지 명확히 해야 함, (김종원 위원) 공익기능을 충당하느라 산림경영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산주·임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열악, 산림청에 세제 관련 조직 설치 필요, (김재현 본위원) 세금은 재산 가치를 근거로 책정, 준보전산지 경영에 따른 공익적 가치는 보상체제로 접근하는 것이어서 현재 적용 과세 기준에서의 제외는 어려움이 예상

[5] 의제안 4. 시·군 산림계획제도 도입 및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재구축

- (발제, 이강오 위원) 국내의 파편화된 사유림 소유 구조 여건상 탄소 흡수원 및 목재생산 등 기능 극대화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단위의 경영계획 형성과 집행으로 산림계획 구조 전환 필요, 지역 산림경영 및 정보화에 대응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논의) (김재현 위원) 산림 분야의 확장성을 위해 시·군 단위에서 임업인이 역할 가능한 시스템이 각각의 분권 속에서 운영돼야 하고, 시·군 산림계획제도 실행으로 지역단위 통합 경영과 산업 및 고용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실행 가능한 전문 산림경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

[6] 의제안 5. 산불피해목 분산형 바이오매스 이용방안

- (발제, 이승재 위원) 이번 산불 피해목을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 2MW급 열병합발전소를 4곳에 조성·운영하여 에너지 생산과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자립마을 구성에 활용하는 사업 추진
- (논의) (김종원 위원) 발제 내용 총론에는 동의, 에너지 공급원을 산불 피해목에 한정하지 않고 업종 클러스터형 분산형 순환이용을 통해 다양화하면서 원가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가 필요, 원목이 대형 발전소의 발전원으로 활용되고 REC가 지급되는 현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7] 워크숍 폐회

- 최무열 위원 : 워크숍에서는 의제안별 발제와 질의·응답을 진행, 이어 제2차 전체회의는 전체적 관점에서 의제 선정을 토론 예정

□ 향후 추진 계획

- 의제 선정 논의를 위한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4.15.